

보령시의회, 제8대 의회 4년을 돌아보며

- 상호견제와 균형 조화로 협치 이뤄내

- 코로나19와 함께한 후반기, 의정활동 돌파구 찾아 시민 목소리 대변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 의회』라는 구호 아래 “변화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 균형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온 제8대 보령시의회 4년간의 의회 운영을 돌아본다.

1. 내실 있는 회기 운영, 행정사무감사 통한 발전방향 제시



제8대 보령시의회에서는 제207회 임시회부터 제243회 임시회까지 총 37회(309일) 회기 기간 중 6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81건의 안건을 의안별로 보면 조례안 369건, 예산안 38건, 의견제시 23건, 동의(승인)안 106건, 건의·결의안 22건, 기타 123건이다. 합리적인 비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1,79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는 814건이다.

2. 보령시의회 최초의 전·후반기 연임 의장 선출



2018년 7월과 2020년 7월 있었던 의회 원구성에서 박금순 의원이 잇달아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보령시의회 최초로 전·후반기 연임 의장이 됐다. 박금순 의장은 3선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비롯해 특유의 포용력과 리더십, 상호 견제와 균형 조화로 제8대 의회를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며 청렴한 모범 의회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코로나19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의정활동



2020년 1월 국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다른 현안보다 우선했다. 그러나 시민과의 접점이 줄어든 만큼 의원연구회 활동에 집중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 했고, 감염위험이 적은 야외 봉사활동이나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4.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우수’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시의회는 의원연구회를 통해 복지·환경·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아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했고 의원들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집합교육 및 청렴 관련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5. 시민 목소리 대변자 역할 충실, 각종 현안 해결



2021년 6월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댐 소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책 마련의 절실함을 반영한 것으로 토론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와 의견을 공유했으며 올해 4월 제4차 회의까지 진행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적극적인 5분 발언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종 현안이 담긴 24건의 5분 발언은 들리지 않던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했다.

6. 시민과 소통기능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020년 7월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신설됐다. 당초 의정팀에 속해 있던 홍보 업무를 팀 단위 업무로 확대하여 시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홍보팀 신설 후 정기적인 의정뉴스 제작과 소식지 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누리집(홈페이지)과 SNS를 활용하여 의정 소식의 전달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의회의 인사 자율성 확보 및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박금순 의장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릴 제9대 보령시의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